

사랑사랑

제94호 (2002/ 10/23)

미국의 더러운 전쟁을 반대한다



반전평화 국제행동 문화제의 한 때(인사동) 2002. 10. 8

(110-522)서울 종로구 명륜동2가 8-29, 3층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http://www.sarangbang.or.kr>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rights@chollian.net



인권운동사랑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나의 인권이야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다녀와서

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95년 11월, 96년 1월에 이어 7년여 만인 지난 9월 7일, 또 제네바를 찾았다. 7년 전과 똑 같은 숙소에 밤늦게 들어섰다. 아무도 없는 로비에서 내 앞으로 남겨진 열쇠 하나가 나를 맞았다. 15시간에 걸친 여행의 피로를 무시하고 자료들을 꺼내 늘어놓았으나 곧 잠이 들었다.

나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연은 94년 겨울에 시작됐다. 외국의 한 인권단체로부터 소포를 받았다. 거기에는 한국정부의 1차보고서 영문본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유엔의 보고서 제도에 대한 설명과 민간단체 보고서 작성 지침이 들어있었다. 사랑방 활동가들은 '아동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고민을 하게됐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동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협약의 내용을 알리고 민간보고서를 함께 준비할 것을 권유했다. 기자들에게도 아동과 관련된 선정적인 문제보다는 아동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다.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등장하고, 청소년과 함께 하는 협약 공부와 인권 토론회, 어린이날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의 인권'이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게 됐다.

20여개 단체가 함께 민간보고서를 만드는데는 반년간의 작업이 필요했다. 많은 사안들이 쏟아졌으나, 민간보고서는 20쪽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서에 충실하느라 원고의 상당부분이 잘려나갔다. 그리고 영역을 하기 위해서 심봉사 심청이 젓얻어먹이듯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 헤맸다. 그렇게 만들어진 민간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니 95년 11월에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사전실무회의에 초청을 받았다. 보고서 작업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신 이기범, 노혜련 교수께서 이 회의에도 참석하여 훌륭한 토론을 하셨다. 민간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회의까지 참석하러 온 민간단체가 드물었기 때문인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우리를 환대했다. 위원회는 우리와의 토론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에 제기하는 질문(list of issues)을 작성했고, 96년 1월 한국정부대표단이 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했다. 나는 홀로 그 회의에 갔다. 마침 영국 앰네스티에서 인권교육

연수를 받고 있었던지라 런던에서 제네바로 향했는데, 비행기값이 없어서 장거리 버스를 타고 갔다. 밥값을 아끼려고 런던에서 사가지고 간 마른빵과 버터를 창문밖에 두고 잤다가 (상하지 말라고), 비둘기한테 다 쪼아먹혀서 이틀을 굶어야 했던 일은 지난 7년간 제네바를 얘기할 때면 빠뜨릴 수 없는 에피소드가 되었다. 정부대표단의 무성의한 회의 태도가 배고픈 나를 더욱 성나게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대표단과의 토론회를 마친 후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결론적 의견'을 발표했다. 사랑방은 그 모든 과정을 정리하여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내일을 여는책, 1997)으로 출간했다.

이후 사랑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전도사가 되어 아동,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을 열심히 했고, 국정감사 때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촉구하고 확인하고, 교칙캠페인 등의 실태조사 활동을 했다. 그러는 사이 7년이란 세월이 눈 깜짝할 새에 가버렸다. 2차 민간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아니 벌써?', '또, 내가 해야 돼?', '달라진 게 뭐지?'라는 자문을 계속 했다.

아침에 가쁜하게 일어났다. 한국에서 워낙 야행성 생활을 한 탓인지 시차가 큰 제네바에서 오히려 생생하다. 발걸음 가볍게 숙소를 나서는데 ILO건물 옆에서 외장창 넘어졌다. 무릎팍의 상처가 안 봐도 뻔하다. 옷에 구멍이 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이것으로 오늘 액땀을 했으니 회의가 잘 될 것이라 자위하면서 버스표 기계에 동전을 넣었다. 동전을 두 개나 꿀꺽 하고도(5프랑짜리 두 개를 꿀꺽했다. 9천원이나 되는 거금이다) 버스표를 뱉어놓지 않는다. 이제 동전도 없고 구할 곳도 없다. 감탈당한 동전을 벌충하기 위해 걷기로 했다. 각 나라 민간단체의 아동권리협약 이행활동을 지원하는 국제단체(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로라와 데니스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같은 분야에서 변함 없이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재회하는 것은 피부색과 국적을 떠나 반갑고 기분 좋은 일이다. 그들은 보고서 심의 일정, 민간보고서 작성 요령, 회의 발제 요령 등 실무적인 문제를 꼼꼼히 챙겨줄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인권문제나 민간단체들의 활동내용을 수시로 알려준다. 아동인권 분야의 '시계'같은 역할을 하는 이들도.

제네바 현지에서 함께 하기로 한 이성훈 선배(사랑방의 옛 동료이고, 지금은 제네바에 있는 '팍스로마나' 사무국장이다)와 이해연 교수(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안식년으로 제네바에 와 계셨다)와 민간보고서의 핵심을 점검하고 발제문을 가다듬었다. 회의장 앞에서 자꾸 심호흡을 하자 이해연 교수와 엔지오 그룹의 인턴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격려해주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민간단체에 가장 우호적인 위원회로 알려져 있다. 관료적이거나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민간단체의 의견에 대한 경청과 아동 인권에 대한 애정

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 1월 15일이면 그들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다. 정부 대표단을 추궁할 때의 모습은 외교적 언사 속에서도 날카롭기만 하다. 1차 보고서 심사 때를 고훈 삼아 정부대표단이 철저한 준비 속에서 진실어린 약속을 하기 바란다. 솔직히 1차 보고서 심사를 받을 때의 정부대표단 모습은 실망을 넘어 수치스러운 것이었다. 7년여의 시간은 망각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시간이었다. 내년 1월 15일, 한국정부보고서 심사가 있을 때, 이 점을 확인하고 싶다.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써보내고 나니 이제 자유의 시간이 만나질 주어졌다. 거리를 거닐어 보지만 아름다운 풍경이 썩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 내게는 제네바가 영원히 긴장과 부담의 도시이기만 할 것 같다. 이번 회의에서 구두발제를 할 때 "7년 전과 똑같은 되풀이는 필요 없다. 한국의 아동들을 또다시 실망시킬 수 없다. 실질적인 조치가 이번에는 취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내년 1월에는 다른 느낌과 기대로 제네바를 보고 싶다.

꿈따카툰

이 동수

*꿈따란 '꿈꿈히 따지며 살자'의 준말어에염 ^^...



날도 추워지는데 저 꽃씨는 누가 돌볼꼬?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인권이야기, '이야기'의 맛깔스러움)

인권하루소식 기자 '범용' 이

모든 기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사는 보통 건조하다. 자신의 감정과 주장을 최대한 배제한 채, 주어진 사실들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자의 가치관이 배제된 채 사실을 수집하고 기사를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기사는 적어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독자에게 드러내놓고 주장하진 않는다.

A4 용지 2쪽으로 제작되는 인권하루소식도 대부분 건조한 기사로 채워진다. 이어지는 딱딱한 기사들 때문에 독자들은 인권하루소식 읽기를 지속하기에 버거워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이때 독자들에게 인권하루소식 화요일자 2면 '인권이야기' 읽기를 권하고 싶다. 필자들의 개성과 감수성이 톡톡 묻어나는 '인권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은 인권하루소식에서 틀림없이 감칠맛을 느낄 것이다.

9월 24일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프간 난민캠프를 다녀와서'를 보자. 우선 인권하루소식 자체 역량만으로는 도저히 기사작성이 불가능한 소재여서 주목된다. '9·11 사건' 1년에 되는 날, '9·11 사건'의 피해지역 아프간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물론 이야기는 순간의 기억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79년 구소련의 아프간 침공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프간의 역사도 보여주고 있다.

"다가올 겨울을 걱정하면서도 먼 곳에서 찾아온 외국인 손님에게 차라도 한잔 대접하고 싶어하는 마음 따뜻한 난민 가족들의 찢어진 텐트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다." 계절적 조건과 인간감정을 교차시키며 끝맺는 마지막 문장은, 기사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백미라 하겠다.

10월 1일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천국과 지옥'도 참 맛깔스럽다.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춰 움직이는 대한민국이 언뜻 청소년들에게 천국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더러운 돈 몇 푼을 벌어야 하는 지옥에 다름 아니라는 내용이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상반된 이미지가 청소년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투영되는 현실을 진영종의 인권이야기는 '이야기'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표현하고 있다.

"하기사, 천국을 논하는 자리에 인권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라는 마지막 문장이 우리에게 묘한 화두로 다가오기도 한다.

1) 원래 제목은 "니들이 게 맛을 알아!"를 패러디 해서, "니들이 '이야기'의 맛을 알아?"라고 붙였었다. 하지만 '제목이 독자들에게 너무 무례하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어, 결국 제목을 바꾸게 됐다.

아시안게임이 한창인 때 아시안게임으로부터 '감추어진 세계'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10월 8일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감추어진 세계'도 '이야기' 형식이 빛나는 글이다. 비인기 종목이나 성적이 좋지 않은 나라들은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파업노동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철거민들, 노숙자들도 '감추어진 세계'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11대 0으로 무참히 패배했던 아프간 축구팀의 무참한 자국 현실도 감춰진 세계의 일이다.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의 입을 봉하고 있는 이 이상한 현실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비판을 제기하는 일은 멈추어서는 안 된다. ... '하나의 아시아'라는 그럴듯한 이데올로기 속에 감추어진 불손한 우민화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결론은 다소 급하고 단정적으로 내려졌지만, 논리적으로 빈 공간들은 '이야기'라는 형식 속에서 오히려 주장의 강인함을 느끼게 해 준다.

10월 15일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의 집단발병, 왜 방치하는가'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논리적 무게감이 돋보인다. 이야기는 지난해 대우조선 노동자 2백48명에게 집단적으로 발병한 '근골격계 질환'을 소재로, 무시당하고 있는 '노동자 건강권'을 주장한다.

서울 한 동네에서 2백48명의 시민이 동일한 질병을 호소했다면, 언론도 관심을 갖고 정부도 대책을 내세웠을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경우가 노동자에게 발생하면, 이는 개인의 부주의로 돌려지고 이들의 투쟁은 고립되기 일쑤라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한편, 이야기는 건강권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는 인권하루소식의 한계도 적절히 보완해 주고 있다.

사실 '이야기'의 형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을 할 수도 있고, 해설을 할 수도 있고, 느낌을 드러낼 수도 있고, 단상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기사' 형식이라는 다소 엄격한 조건을 구비해야 하는 인권하루소식의 많은 글들과는 달리, 인권하루소식의 맛깔을 다채롭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하루소식은 인권이야기의 필진을 선정하는데 많은 고심을 한다. 인권이야기의 필진은 모두 4명! 이들은 성별, 신분, 활동분야 등 가능한 다양한 영역에서 섭외되어, 매주 화요일마다 돌아가며 4번씩 인권이야기를 작성한다.

현재의 필진은 부산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정귀순 대표, 성공회대 영문학과 진영종 교수,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활동가다. 이들은 앞으로 1번씩만 더 쓰면 인권이야기 4번을 채우게 된다. 그 이후엔 또 다른 필진들이 독자들을 찾아갈 것이다.

남은 1번의 인권이야기와 새로운 필진을 기대하며, 화요일자 인권이야기를 관심있게 읽어 보자.²⁾

2) 지금까지 '범용'이의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을 애독해 주신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범용'이는 10월 14일자로 인권하루소식 전임직을 마치고, 기획사업반과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은 이주영 편집장 등 다른 분들이 맡게 될 것입니다. 보다 많은 관심과 기대 바랍니다.

사/업/보/고

(2002년 9월 넷째 주 - 10월 셋째 주)

인권교육실

1. 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 후속사업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제기하는 질문목록(list of issues)이 나오면 이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재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내년 1월 15일에 열리는 한국정부대표단과의 회의에 내실을 기하도록 정부 각 부처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인권교육길잡이」 개정판 준비 중

매주 금요일에 모이는 '인권교육연구모임'을 중심으로 교재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재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모임에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 김영원 씨 논문 준비 중

교육실의 김영원 상임활동가가 '청소년노동권'을 주제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논문을 기대합니다.

인권정보자료실

1. 10월 19일 인권정보자료실 내부 워크숍 가져

지난 10월 19일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은 인권정보자료실 내부 워크숍을 진행하

였습니다. 상임활동가들은 현재 자료실 사업을 재검토하고, 자료실의 방향과 진보적인 인권운동에 기여하기 위한 자료실의 역할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 앞으로 자료실의 방향을 △자료기획 발굴 △인권지표 개발을 통한 자료수집 △주제별 자료가공 업무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 인권하루소식 기사 데이터베이스 분류체계 재조정, 프로그램 수정 중

올해 3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이 모여 인권하루소식 분류체계를 고민하면서 틀거리를 짰던 내용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초 하루소식 분류체계를 기획했던 때에는 참세상을 통해 제공되는 인권하루소식 검색이 워낙 좋지 않아 인권하루소식에 소개되는 사례별 기사들이 잘 검색되지 않는다는 판단 속에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까지 나누는 방식으로 아주 세밀한 그물망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3년치 하루소식 기사를 넣어 DB프로그램을 운영해보니, 단어검색 기능이 워낙 좋아 주제어 검색을 세밀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짰던 분류체계를 재검토해서 과감하게 소분류/세분류 항목을 없애는 방식으로 재조정했습니다.

현재 자원활동가 이영태씨가 프로그램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동안 넣은 주제어는 새로 짰 프로그램에 맞추어 다시 입력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작업

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편, 자원활동가 손득원 씨 등이 1999년 1998년 인권하루소식 글상자편집 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11월부터 1999년 1998년 인권하루소식 기사를 DB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3. 인권데이터베이스에 '국문 참고문헌' 등록 마무리, '영문 국제인권법' 등록 중
인권정보자료실은 인권데이터베이스에 국문 참고문헌 150여개 등록을 완료했고, 현재는 영문 국제인권법과 참고문헌 자료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에는 세계인권선언, 유럽인권협약, 반인도적 범죄, 제네바협약, 행형, 국제형사재판소, 지역인권헌장 등 국제적인 주요인권기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4. 국제형사재판소 해설과 로마규정 원문 등록
<유엔과 인권 꾸러미> '국제인권규약과 이행감시기구'에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해설이 추가되었습니다. 로마규정 국문과 영문도 함께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내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획사업반

1.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9월 26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인권하루소식에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라는 꼭지를 연

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11월 26일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가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인권현안이 무엇이며, 어떠한 결실을 맺고 있는지, 최초의 인권전담 국가기구의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때문에 인권하루소식의 '국가인권위' 연재기사는 인권위원회를 둘러싼 현안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달간 주요하게 다뤄진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의사진행의 폐쇄성 △전시성 인권영화·인권만화집 제작 △인권단체와 국가인권위 사이의 공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폐쇄로 나타난 관료주의 △법령심사의 소극성 △진정사건 처리에서 나타난 인권위의 비겁한 결정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하루소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6회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열려

17~20일 여수에서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공동주관으로 「제6회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근대 이후 강대국 중심의 동아시아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기획사업반은 18일 하루 참가해 △동아시아 냉전체제의 형성과 탈식민지화의 좌절 △동아시아 냉전형성에서의 미국과 캐나다의 역할 △한국의 과거청산과 특별법 제정운동 등 3개의 세션에 참가했습니다.

인권영화제

1. 인권영화제 내부 워크샵

지난 9월 28일은 내부 워크샵을 치렀습니다. 내부 워크샵은 사랑방의 각 사업 단위의 평가와 이후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서 상임활동가와 자문위원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주발제는 김정아 인권영화제 담당 상임활동가가 맡았으며 뒤를 이어 서준식 자문위원과 류은숙, 고근에 상임의 보조 발제가 있었습니다. 주발제에서는 영화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업무에 있어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워크샵에서 무엇보다 진지하게 논의되었던 것은 "앞으로 영화제가 어떤 형태와 목적을 가질 것인가"였습니다. 진보적 인권운동의 한 장르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영화제는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했지만 그 형태는 각자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변화의 내용'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영화제의 쟁점'을 심도 있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2. 두 번째 '반딧불'

이번 달 반딧불(인권영화 정기상영회)이 지난 17일 아트큐브에서 열렸습니다. 작품은 수인의 인권에 대한 영화 <아티카의 유령들>이었습니다. 상영에 앞서 사랑방에서 감옥의 인권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서준식 자문위원의 짧은 강연이 있었습니다. "감옥의 폭동-인간성 회복을 위한 마지막 절규"라는 주제의 강연은 감옥 폭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아티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길잡이가 되었음을 물론이고 우리 근현대사에 숨어 있는 국내 감옥 폭동 사건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해석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은 영화, 좋은 강연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 반딧불은 30여명 가량이 참석했습니다.

다음달 반딧불에선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영상에세이 <신의 아이들>이 상영됩니다. 필리핀의 거대한 난지도 파야타스 지역에서 쓰레기더미를 헤치며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을 기록한 필름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사는 이 사람들을 '신의 아이들'이라 명명한 이유를 영화를 통해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오는 11월 14일부터 열리는 부산영화제의 '와이드 앵글'부문에서도 상영된답니다. 반딧불은 11월 14일 광화문의 일주아트하우스 '아트큐브'에서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사/랑/방/소/식

(2002년 9월 넷째 주 - 10월 셋째 주)

1. <인권하루소식>의 새로운 얼굴들

범용 <인권하루소식> 기자가 피로의 누적을 호소하여 전임기자를 그만두고 일주일만에 이틀만 기자로 활동하고, 그 외 시간은 기획사업팀에서 활동합니다. 범용 기자의 공백은 다른 상임활동가들이 일주일씩 당번기자를 정해 채우기로 했습니다. 이런 하루소식의 고충을 알았는지, 자원활동가인 박종모 씨와 신성연이씨가 하루소식 기자에 지원했습니다. 박종모 씨는 인권영화정기상영회 '반딧불'을 인연으로 하루소식 기자일을 시작하게 됐고, 신성연이 씨는 현재 고등학교 3년인데, 재학중인 대안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사회단체에서의 활동을 권장하기에 사랑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내부 워크샵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 내용과 방향을 점검하는 내부 워크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감옥의 인권, 인권교육실, 인권영화제, 인권정보자료실에 대한 워크샵을 마쳤고, 10월 마지막주에 <인권하루소식>에 대한 워크샵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를 비워놓고 진행되는 이 워크샵을 통해 사랑방 성원들은 기존 사업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장기적 방향을 세우려고 합니다. 워크샵의 내용은 연말에 종합 정리될 계획입니다.

3. 한·일 청년포럼 방문

한·일 청년포럼에 참가한 20여명의 젊은이가 10월 4일 인권운동사랑방을 방문하여 한국 인권운동의 현황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4. 인권활동가대회 준비 중

11월 말에 1박 2일 동안 인권활동가대회를 열 계획으로 몇몇 인권단체들이 공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활동가대회를 통해 인권활동가들의 관심사와 고민을 모아보고 연대운동의 대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5. 의문사법 개정촉구 농성

여의도의 칼바람 속에서 의문사 유가족들이 의문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노상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랑방 식구들도 지지방문을 하고 일인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이 합집산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을 향한 외침이 공허하기만 한 형편입니다. 한나라당 당사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노상농성중인 유가족 분들을 지지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성은 이번 국회가 끝나는 11월 8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2002년 9월 회계 보고

(2002년 9월 17일 - 2002년 10월 16일)

이월금 : 3,538,885 원			
수 입		지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익 2,026,680원 -하루소식 1,339,64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독료 1,197,840 기사배급 141,800 -간행물 판매 54,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깨어나일어나 3권 인간담게 살 권리 1권 한국감옥의 현실 1권 -감옥관련 자료집 31,990원 -자료제공 70,810원 -합본호 50,000원 -강연료 390,000원 -<희망>판매 90,240원 ■ 후원금 4,873,73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후원 4,873,730 ■ 활동가 기여금 98,910원 ■ 은행이자 4,012원 ■ 기타 58,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1,538,72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루소식 우편발송 159,820원 -자료실 149,900원 -기획사업팀 7,000원 -교육실 787,320원 -사람사랑 제작발송 138,380원 -연대사업비 127,000원 -출장비 및 취재비 169,300원 ■ 활동비 3,150,000원 ■ 사무실유지비 1,272,590원 ■ 통신비 753,620원 ■ 간행물 구입비 338,000원 ■ 사무국 식비 334,150원 ■ 사무비품 205,220원 ■ 생활비 205,490원 ■ 기타 331,460원 <p>(그림 판넬 제작 3개/ 우표구입/ 우편 후 납 보증보험 등)</p>		
총수입: 7,061,332 원		총지출: 8,129,250원	
잔액: 2,470,967 원			

<2002년 9월 재정 세부내역>

- 8월회계 중 유지비 지출에 착오가 있어 정정합니다. 지난달 유지비 지출은 8월 사람사랑에서 보고된 것보다 50만원이 적은 1,347,640원 입니다. 따라서 9월로 이월된 금액은 3,538,885원입니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실무회의 참가비 등으로 교육실 사업비가 지출되었습니다.
- 단존스씨가 사랑방에 기증한 그림을 판넬로 제작하는 비용이 기타 지출비용에 포함되었습니다.
- 의문사법 개정을 위한 유가족 농성과 양심적병역거부운동의 확대를 위한 문화제 등에 연대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9월 후원금 납부 감사합니다> 캐나다 순, 10/17일(지로는 10/16)까지

